

지식기반 사회 학교 예술교육의 인식론 및 실천론적 가능성 탐색

최 은 식*

차 례

- I. 서론
- II. 지식기반사회
 - 1. 정의
 - 2. 특징
- III. 개인적 지식
 - 1. 객관성
 - 2. 전통과 감식력
 - 3. 두 종류의 인지
 - 4. 관여
- IV. 예술적 인식
- V. 지식기반사회 학교예술교육의 인식론적·실천론적 의미
 - 1. 인식론적 의미
 - 2. 실천론적 의미
- VI. 결론

I. 서 론

우리나라의 공교육 체계에서 학교의 교과들이 공식적으로는 공통교과와 선택교과의 틀로 이루어져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주지교과와 비주지교과의 2분법에 의해 분류된다. 이 비공식적

* 전국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교수

인 분류법에 따르면 국어, 영어, 수학, 역사 등의 교과는 주지교과에 포함되는 반면 체육, 음악, 미술, 무용, 실과 등의 교과는 비주지교과로 분류된다. 지난 세기의 주지교과와 비주지교과의 구분은 산업화 시대의 지식개념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2-3세기 동안 전 세계에 걸쳐 이루어진 산업화는 인식주체와 객체의 엄격한 구분을 전제로 하는 객관주의적, 실증주의적 지식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산업화 시대의 주도적 지식관에 의하면 인식의 주·객 구별이 분명하고 절차가 명확, 또는 관찰가능하게 진술될 수 있는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며 이러한 범주에 들지 못하는 분야는 과학이나 학문의 변방으로 치부되었다.

지난 산업화 시대의 학교교육은 사회의 주도적 인식론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주지교과 지상주의'의 왜곡된 유산을 21세기까지 남겨주었다.

20세기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된 정보화는 산업화 시대 인간이 주로 담당하였던 객체화된 지식의 축적과 숙달된 기능을 컴퓨터와 컴퓨터의 연산기능을 활용한 자동화 기계가 담당하도록 만들었다. 이뿐 아니라 개인사용자 중심이었던 컴퓨터가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적인 망(網)으로 묶여지면서 사람들은 개인적인 지식과 정보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서로 소통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 새로운 사회에서는 자본, 노동, 기술 등 산업화 시대의 핵심개념이 지식, 정보, 디지털화된 유통 등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렇듯 재화의 직접 생산보다는 지식의 창조와 활용이 부의 창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사회를 '지식기반사회'(knowledge-based society)라고 부른다.¹⁾

지식기반사회는 인간사고의 정밀성·속련성뿐 아니라 유연성·개별성 및 감성을 요구한다. 이는 객체화, 객관화 된 사고를 전제로 하는 산업화 사회의 지식개념에 대한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산업화 시대 실증주의적 지식관에 의해 간과되거나 무시되었던 지식의 개별성 또는 암묵성(暗黙性)이 지식의 중요한 범주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사회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와 이에 따른 지식개념의 변화는 학교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전 사회의 주된 지식개념에 의존하였던 '주지교과'와 '비주지교과'의 구별은 이제 동일한 논리에 의해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전 사회가 객관화되어 진술·축적될 수 있는 지식의 전수를 학교교육에 요청하였다면, 지식기반사회는 감성적·인격적 지식의 전수를 요청하고 있다.

주관성, 개인적 경험, 감성의 소통(communication of subjectivities, private experiences, and feelings)은 예술의 핵심적 과정이자 목표이다. 지식기반사회의 학교교육에서 예술교육의 역할

1) 배순훈, "지식기반사회로의 발전", 한국행정연구, 9(1), 225쪽.

이 재평가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 논의의 목적은 첫째, 지식기반사회의 특징을 고찰하고, 둘째,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의 형태를 폴라니의 '개인적 지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셋째, 개인적 지식의 범주에 가장 적합한 인식형태 가운데 하나로서 예술적 인식 특징을 밝히고, 넷째, 이를 근거로 하여 지식기반사회 학교예술교육의 인식론적·실천론적 의미를 재확인하려는 데 있다

II. 지식기반사회

1. 지식기반사회의 정의

지식기반사회라는 용어는 1990년대 이후 사회가 컴퓨터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화에 의해 재편되고 이에 따라 물자와 정보의 생산·관리·유통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용어는 제일 먼저 경제학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곧이어 다른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지식기반사회에 대한 정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식과 아이디어의 창출, 확산, 활용이 모든 경제활동의 핵심이 될 뿐 아니라 국가의 부가가치 창출과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사회라는 의미를 포함한다.²⁾

지식기반사회에 대한 정의들은 지식기반사회의 조건으로 정보와 지식의 효과적 소통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라는 하드웨어적 요소를 기본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창출하는 개인과 국가의 능력이 생존의 핵심요소가 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강조한다.

이를 인식론적으로 환원하면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의 범위가 객관적·명시적(明示的)인 것으로부터 주관적 경험과 정서를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아이디어를 구안해내는 암묵적(暗默的)인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지식기반사회의 특징

지식기반사회의 특징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은 1) 문화의 자원화 2) 세계화 확산과 범세계적 경쟁의 심화, 3) 정보-가상공간의 확장, 4) 소득증대에 따른 기호와 여가의 개별화·고급화의

2) 이선 외, 지식기반경제의 이론과 실제, (서울: 을유문화사, 2000).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문화의 자원화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에 디지털 기술이 놓여있으며,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기술과 통신의 연결은 물리적 국경의 개념을 무의미하게 만들면서 전 세계를 하나의 활동권역(活動圈域)으로 묶어놓았다. 물자들이 대륙간 도로나, 항로, 해로를 통해서 소통되면서 부가가치를 높였던 것처럼, 이제는 무형의 지식상품이 디지털정보망을 통해 교환되고 이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었다.

지식기반사회에 들어오면서 무형의 지식상품의 부가가치가 산업생산품의 부가가치를 추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 다양한 지식 상품 가운데 가장 부가가치와 경쟁력이 높은 상품은 문화상품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 문화는 곧 자원이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디지털 유통망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지식문화상품의 창출에 전력질주하고 있다.

2) 세계화 확산과 범세계적 경쟁의 심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전 세계의 컴퓨터들이 인터넷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며 이는 더 이상 한 국가나 지역이 외부로부터 고립된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계화의 특징은 한 개인이나 국가에 명과 암을 동시에 가져다준다. 즉, 전 세계의 정보·지식 사용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창출하는 개인과 국가는 빠른 시간 안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개인과 국가는 빠르게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있다.

3) 정보-가상공간의 확장

최근까지 학교의 정보화 교육과 관련해 주로 사용되었던 멀티미디어기반교육(multimedia-based education)이 정보통신기반교육(ICT-based education)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는 사회의 정보환경이 개인용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거대한 가상공간으로 상당부분 옮겨갔음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인터넷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형성된 가상공간(cyber space)은 이미 지식기반사회의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경을 초월하여 인간 활동의 여러 국면들을 통제하고 있다. 외견상으로는 디지털 가상공간이 무정부적이며 양방향 의사소통공간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식·문

화정보의 질과 잠식력에 의해 범세계적인 문화종속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지식기반사회는 정보와 지식을 디지털화 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해 내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가속화된 정보의 멀티미디어화는 정보를 단순 가공하는 공학적 지식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포괄하는(inter-disciplinary) 새로운 형태의 직업군을 필요로 한다.

4) 소득증대에 따른 기호와 여가의 개별화·고급화

지식기반사회는 산업화가 고도로 진전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러한 사회는 개인의 소득이 매우 높고 이에 따른 여가가 늘어나는 특징을 가진다. 산업사회에서 인력이 차지하던 많은 일들을 컴퓨터와 자동화 기계가 대체함에 따라 사람들은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는 기호와 여가의 개별화와 고급화를 가져온다. 이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개별화·고급화된 기호와 여가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이 부가가치 창출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됨을 의미한다.

Ⅲ. 개인적 지식

산업화 시대의 지식개념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인식주체의 자발성이나 가치 등과 같은 주관적 요소들을 배제한 객체화된 지식체계를 전제로 하였다. 지식의 상대성에 관한 주제는 그리스 시대부터 철학적 탐구의 주된 주제 가운데 하나였지만 지난 산업화 시대에는 경험주의에 근거한 합리적 지식 절대주의가 다른 인식론적 사조를 압도하여왔다. 인식주체와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체계가 가능하다는 지난 세기의 신념은 물리적 세계를 다루는 자연과학에서 분 아니라 인간의 행동과 경험을 다루는 사회과학에 있어서도 주된 전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사회체제의 변화와 함께 지식의 절대성의 신념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탈합리적 인식론들은 객관적 지식의 전적인 부정이나 해체와 같은 극단적 입장에서부터 객관적 실체와 주관성을 모두 수용하는 입장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폴라니는 화학 및 물리학의 배경을 가진 철학자로서 객관적인 지식체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인식의 개인이나 전통의 차원으로 확장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산업화 시대의 전통적 학교들이 지식의 객관주의에 머물러 '지식 전수소'의 역할을 담당한

반면, 지식기반사회의 학교는 지식을 ‘개인적’ 또는 ‘주관적’ 영역까지 확장하여 체계화된 교과 지식과 함께 지각, 주관성, 감성, 가치관 등의 개인적 또는 암묵적 요인을 학습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식을 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식의 객관성

폴라니는 뉴턴역학과 데카르트 이후의 전통적 인식론을 반박하고 지식의 구성요소에 인간의 숨씨, 열정, 신념 등을 포함시켰다. 폴라니는 극단적 구성주의자들처럼 지식의 객관적 구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전통적 지식관이 배제하였던 지식의 생성에 있어 개인적 참여의 필연성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하여 폴라니는 지식형성의 주관성과 객관성의 통합을 성취하려 하였다.

폴라니는 객관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세계에 관한 우리의 그림에서 우리 인간의 관점을 엄격히 제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불합리하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개인의 주관성이 배제된 객관적 진술의 비합리성을 지적하였다.³⁾ 그는 이와 함께 어떠한 진지한 사실 주장도 본질적으로 지적만족이나 강한 욕구와 개인적 책임을 수반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과학적으로 보이는 지식조차도 신념에 의해 조절될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하였다.⁴⁾

2. 전통과 감식력

폴라니는 ‘전통’과 ‘감식력’의 예를 통해 지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개인적 참여의 속성을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전통은 목표가 되는 행동이나 지식을 일련의 과정으로 서술함으로써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전통이나 기예는 처방에 의해 전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기예는 본보기를 통해서만 대가로부터 전승생에게 전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예나 숨씨의 전승은 개인적 접촉에 한정된다.⁵⁾

도제가 대가의 모범을 따라 모방학습을 하는 것은 대가의 권위에 복종하는 행위이다. 도제는 스승의 수행(performance)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 스승 스스로도 명시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반성적으로 대가의 전통을 이어간다. 이와 같이 전수될 수 없는 규칙들은 무비판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동화될 수 있다.⁶⁾

3) 폴라니, 표재명·김봉미 역, 개인적 지식: 후기비판적 철학을 향하여, (서울 : 아카넷, 2001), 22쪽.

4) 전계서, 56쪽.

5) 전계서, 92쪽.

6) 전계서

전통에 있어서 기예나 솜씨와 마찬가지로 풀라니는 '감식력'에도 진술될 수 없는 개인적 참여가 개입함을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검사하거나 음미하는 것과 같은 감식력은 수영이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이 좀더 지속적인 근육의 활동적 기술을 요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식력도 오직 본보기를 통해서 교통되며 규율에 의해 교통되지 않는다.⁷⁾

3. 두 종류의 인지

풀라니는 인간의 인지과정에 두 종류의 인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에 의하면 우리가 망치로 못을 내려 칠 때 손잡이가 우리의 손바닥을 쳤다고 생각하지 않고 망치머리가 못을 쳤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치를 쥐고 있는 손바닥과 손가락의 느낌에 주의를 한다. 즉, 손에 잡혀있는 손잡이를 강하게 인지하면서 동시에 못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풀라니는 못에 집중되어 있는 인지를 '일차적 인지'(focal awareness)로, 일차적 인지 안에 무의식적으로 녹아들어 있는 손바닥의 느낌에 대한 인지를 '부차적 인지'(subsidiary awareness)라고 하였다. 풀라니에 의하면 피아니스트에게 있어서 일차적 인지는 연주하고 있는 음악의 형태이며 부차적인지는 손가락 끝에 전달되는 건반의 느낌이 된다.⁸⁾

4. 관여

풀라니는 외적대상에 대한 일차적 인지에 스며든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차적 인지에서 개인적 지식의 뿌리를 추적한다. 그에 의하면 부차적 인지의 존재자체가 개인적 지식의 논리적 구조와 역동적 원천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은 도구를 통하여 행위의 지적 목적을 달성하며 이 때 도구는 인간의 부차적 인지의 일부가 된다. 도구는 그 순간 우리의 실존적 일부가 된다. 도구와 마찬가지로 기호 또는 상징도 어떤 것을 성취하거나 지시하려고 그것을 사용하는 한 개인의 수준에서만 기호나 상징이 된다. 인식에 있어서의 인식주체에 대한 이러한 의존을 풀라니는 개인적 관여(commitment)라고 하였다. 우리는 개인적 관여를 통하여 어떤 것을 우리의 일차적 주위에 부차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이다. 풀라니에 의하면 어떤 사물에 대한 부차적 인지를 통해 우리 자신을 확장하게 하는 모든 개인적 동화작용은 우리 스스로의 자발적 관여이며, 그것이 환경과 관련하여 우리 자신을 다루는 방식이 된다.⁹⁾

7) 전계서, 94-95쪽.

8) 전계서, 96-99쪽.

9) 전계서, 103-105쪽.

IV. 예술적 인식

예술적 인식은 실증주의적 인식론에서 객관화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소외된 주제였다. 그러나 20세기 말 인간과 인간지식의 합리성에 대한 전제들이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구성주의, 해체주의, 또는 포스트모더니즘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 다양한 사조들의 공통점은 인식주체와 객체를 전제로 하는 인간인식의 합리성을 부정한다는 데 있다.

합리적 인식론이 의문으로 남겨두었던 주체적·개별적 인식과정은 예술의 핵심적 과정이다. 예술은 합리적 인식에 의미를 부여하는 전반성적(pre-reflective) 인식에 깊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전반성적 인식은 반성(反省)이 일어나기 이전에 세계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서 주관과 객관의 분리가 없는 인식행위를 의미한다.¹⁰⁾

감정과 가치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객관적 인식은 불가능하다는 탈근대적 인식론은 객관적 지식 이전의 주-객 분리가 불가능한 지각적, 또는 예술적 인식(perceptive or artistic awareness)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에 다름 아니다.

예술적 인식(또는 지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첫째, 예술적 인식은 실재의 측면들과 인간의식이 부딪치는 방법의 인식이다; 둘째, 예술적 인식은 체험의 전형태로 독특한 종류의 지식이다; 셋째, 예술적 인식에서 구체화된 의미는 의식이 지각하는 본질 그 자체(事象)로의 의미이다; 넷째, 예술적 인식은 상상적 인식(imaginative awareness)을 통한 개인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섯째, 예술적 인식은 상상적 지각과의 결합을 통해 사상의 가능한 측면들의 다양성을 인식하게 한다; 여섯째, 예술적 인식은 우리 자신과 삶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주어진 것에 대한 상상적 변형을 포함한다; 일곱째, 예술적 인식은 인지와 지각이 결합된 인식유형이다.¹¹⁾

종합하면, 그동안 인격성과 감성이라고 하는 인식론적 특성으로 인해 근대적 인식론의 담론에서 주변적 위치를 차지하였던 예술적 경험과 인식은 인식의 합리성이 여러 사조에 의해 도전받으면서 확장된 인식적 지평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인식론의 변화는 객관적 지식관에 기초한 학교교육의 교과와 내용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구성주의는 이들 변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관점이다. 구성주의는 예술이 오래전부터 당연시하던 주관과 객관의 통합, 인식과 표현의 개별화, 가치와 의미부여 행위 등의 교육학적 치장에 다름 아니다.

10) 김채영, "교육의 인식론적 지평확대에 관한 연구 : 예술교육의 전망," 교육철학 4, 38쪽.

11) 전제서, 42-43쪽.

결론적으로, 예술적 인식은 인식에 있어 내적요인과 주관성을 강조함으로써 플라니의 개인적 지식의 개념과 유사성을 나타낸다. 학교의 주지주의적 교과들이 전통적으로 외적인 지식체계를 절대화하고 이를 내재화, 인격화 하는 과정을 철저하게 무시한 반면 예술교과들은 오히려 외적인 지식요소보다 지식의 내적·주관적 과정을 강조한다는 점 때문에 학교교육의 변방에 머물러야 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산업화 시대 인간이 담당하였던 지식의 많은 기능들이 정보화에 의해 대체되어가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자체의 획득보다는 지식을 개별화하고 가치화 하는 내적과정의 학습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학교의 모든 교과가 기존의 객관주의적 접근에서 개인적인 접근으로 학습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예술교과는 본질적으로 내적과정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학교의 다른 교과와는 차별화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재평가 되어야 한다.

V. 지식기반사회 학교예술교육의 인식론적·실천론적 의미

1. 학교예술교육의 인식론적 의미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음악적 용어를 빌리자면 언어적으로 끊임없이 '즉흥연주'(improvisation)를 하는 것과 같다. 언어적 즉흥연주의 재료는 의미의 저장고인 단어들과 이들의 관계를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보조어들로 이루어진다.

인간이 발화를 할 때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은 말의 재료가 되는 단어나 조사들이 아니다. 그것은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에 감성을 불어넣기 위해 사용하는 감각에 의해 이루어진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개인은 단어를 많이 나열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범위를 감지(感知)하고 그 단어들이 종합되었을 때의 전체적인 느낌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즉, 분절되기 이전의 종합으로서의 언어의 의미를 전반성적으로(pre-reflective)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다.

분절된 요소로서 언어의 문법적 의미나 의미의 기본 저장단위인 단어에 대한 학습은 주지주의적인 언어교육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재료로 사용되는 언어에 감성을 불어넣고, 그 언어를 살아있고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언어화 이전의 '감각'이 필요하다.

예술교육의 필요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출발한다. 예술적 인식이 분절화 되기 이전의 인식대상 전체에 대한 지각적·감각적 인식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전체에 대한 지각적 인식이 학습 가능한 것인가에 있다.

폴라니, 듀이, 랭거는 지각적 인식, 또는 암묵적 지식의 학습가능성을 주장한 많은 학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예술적 체험과 감각의 교육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교육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예술적 인식의 교육가능성은 철학자나 이론가들의 통찰을 통해서 뿐 아니라 ‘예술가의 계보’라는 오랜 미적 전통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물론, 예술 교육의 내용이 암묵적 지식에만 제한된 것은 아니다. 각 예술분야는 고유한 지식과 기능의 객관화 된 내용체계를 가지고 있다. 예술교육에 있어서 외재적으로 객관화된 지식과 기능의 전수가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외적 요소들은 필요조건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예술에 창의성을 불어넣는 요소는 외적인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조건들을 통할 할 수 있는 감각이며, 그런 면에서 전반성적으로 일어나는 ‘감각의 교육’이 예술교육의 핵심적 내용이 되어야 한다.

전반성적 통찰, 분절이전의 사상에 대한 지각적 인식, 느낌의 형식 등의 예술적 인식은 디지털화 되거나 자동기계에 의해 대리될 수 없다는 면에서 가장 인격화된 형태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감성화되고 인격화된 인식능력이야말로 말로 지식기반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적 능력이며, 이는 지식기반사회 학교 예술교육의 위상과 의미가 재평가 되어야 할 정당한 근거를 제공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객관적 지식과 기능 자체보다는 지식과 기능을 지적도구로 이용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종합(또는 형식)을 산출해 낼 수 있는 통찰능력의 습득이 학교의 중요한 목적이 된다. 예술교육은 사상(事象)에 대한 총체적, 인격적 인식의 학습을 그 핵심적 과정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식기반사회의 인식론적 요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게 된다.

2. 학교예술교육의 실천론적 의미

지식기반사회의 예술교육은 인식론적 필요뿐 아니라 지식기반사회의 특성에 대한 적절한 실천적 대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1) 문화의 자원화와 예술교육

문화자원화는 학교의 교과들 중 예술교과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문화를 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재료’의 확보와 ‘새로운 문화자원의 지속적 창출’이 필요하며, 학교의

교과들 가운데 이 두 가지의 요소를 핵심적으로 다루는 교과가 예술교과이기 때문이다.

지난 세기의 학교예술교육은 사회에서의 경쟁력이라는 측면보다는 개인적 소양의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한 개인의 문화·예술적 역량이 곧 사회에서의 경쟁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학교 예술교육의 역할과 방법이 새로운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예술교육이 개인의 예술적 소양의 증진이라는 소극적 목표에서 벗어나 사회의 문화자원화의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 의해 이미 만들어진 기존 작품들에 대한 반응 및 표현을 주요 목표로 하는 객관주의적 예술교육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지식기반사회 학교는 학습자 개개인을 예술의 수용자·소비자로 보기보다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문화 창조자로 길러낼 수 있도록 예술교육의 관점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세계화와 예술교육

인터넷은 20세기에 일어난 교통과 전통적 통신수단(analog communication)의 발달이 가져온 세계의 통합을 급속도로 진전 시켰다. 결과적으로, 각 국가나 민족단위 중심의 세계질서의 틀이 급속도로 약화되었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지역이나 공동체는 그 존립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교양이나 지적 흥미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지난 세기 학교의 타문화 교육은 일방적으로 특정 문화권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주입하거나, 그 밖의 문화권의 문화를 미미하게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예술교과도 그러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세기의 학교예술교육은 학습자에게 특정한 문화권의 예술적 유산을 세계 다른 여러 문화권의 예술과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고, 오히려 초월적이며 절대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무의식중에 문화적 사대주의를 조장하여 왔다.

예술교육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의 문화예술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를 통하여 탈지역적 문화의식을 형성시켜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식기반사회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중 하나인 '세계화 대비' 교육에 대해 명료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3) 정보-가상공간의 확장과 예술교육

컴퓨터상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은 전통적으로 분화되어 있던 창작-감상의 영역을 허물어버렸다. 컴퓨터는 자체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기계가 아니다. 사용자가 최초의 정보를 입력하면 컴퓨터는 이를 재가공, 재구성, 저장, 확산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원래의 정보는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컴퓨터의 이러한 기능은 예술의 창작-감상의 과정과 부합한다. 기존의 예술교육은 예술의 창작과 감상의 영역을 독립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컴퓨터를 매체로 한 새로운 예술교육은 이전의 예술교육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된다. 많은 경우, 재료를 다루는 기능과 지식보다는 디지털화 된 재료를 구성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게 되며, 이를 통하여 학습자는 예술가 고유의 상상적 활동을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 뿐 아니라, 컴퓨터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가상공간의 확장은 예술적 정보의 공유와 전파에 있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예술의 최초 창작물과 최종 소비자 사이에 놓여있던 여러 단계의 소통구조가 단일화되어 누구나 자신의 작품을 범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유일한 과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유통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예술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성이다. 예술교육은 정보기술과 가상공간의 기능과 결합하여 이전 어느 시대에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을 국가와 개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4) 기호와 여가의 개별화·고급화와 예술교육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기호와 여가가 개별화되고 고급화되는 특징을 가진다. 기호의 개별화는 예술의 본질적 속성이며, 예술을 통해 다양한 기호와 감각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예술교육은 개별적 기호의 충족을 위한 특징과 함께 늘어나는 여가를 개성적이고 예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가와 예술적 기호가 결합됨으로서, 여가는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창의적 생산 활동이 될 수 있다.

VI. 결 론

21세기 우리 사회는 그 이전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질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의 방향은 지식기반사회로 향해 있다. 지식기반사회는 정보화 사회를 기반으로 하며, 우리 사회는 이미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정도의 단기간 안에 정보화를 성취하였다.

정보화된 사회에서는 인간의 두뇌와 책속에 저장되어 있던 지식이 디지털화 되며, 디지털화된 정보의 가공성은 지식을 주석에서 활용 가능한 인스턴트 자원화하고 있다. 이제 지식은 더 이상

축적의 대상이 아니라 가공과 활용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지식의 활용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지식전달을 주목적으로 하였던 20세기형태의 학교에 대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는 정보화를 기반으로 지식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활동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사회를 의미하며 이러한 사회에서는 지식자체 보다는 지식을 인격화·개별화 하여 사회의 다양한 필요에 맞추어 재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지난 세기 산업화 사회의 인식론적 기초가 객관적·실증적 인식론이었다면, 지식기반사회의 인식론적 기초는 탈근대적, 개인적 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훈은 그 본질상 전반성적(前反省的)이며 개인적 인식론 하에 작용한다.

인식 주체와 객체의 구별을 배제하고, 사상(事象)의 전체를 감각적으로 통찰하며, 대상의 개별성과 독특성을 공감(共感)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예술은 지식기반사회에 가장 적합한 인식형태를 제공한다.

지식기반사회의 특징인 문화의 자원화, 세계화, 가상공간의 확장, 정보기술의 발달, 기호와 여가의 개별화·고급화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가져다주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의 도전은 지식과 기능의 창의적, 개성적 활용이라는 개념과 맞물려 있으며, 우리 사회의 학교들이 산업화 시대의 소위 주지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축적개념에 머물러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국민을 길러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범세계적인 경쟁에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후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예술교육은 지식기반사회의 변화된 요구에 대해 인식론적·실천론적 해결책을 암시하고 있으며, 21세기 학교의 예술교육은 지식기반사회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역할과 위상이 변화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고경화(1998). “잇혀진 차원-예술교육의 구성작업.” 한독교육학연구, pp. 11-25.
- 교육부(2000). 지식기반사회와 교육. 교육부 자료집.
- 김만희 외(2003). “과학지식의 객관성에 관한 고찰: 마이클 폴라니의 인식론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3-1, pp. 100-116.
- 김채영(1980). “교육의 인식론적 지평확대에 관한 연구: 예술교육의 전망.” 교육철학 4, pp. 36-48.
- 양은주 외(2001). “지식기반사회 학교교육과정의 인식론적 대안 탐색: Polanyi의 지식이론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19-1, pp. 363-386.
- 오병남(1972). “예술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미학적 접근.” 미학, pp. 173-197.
- 이경후(1994). “존 듀이의 심미적 경험과 예술교육.” 교육철학 12-1, pp. 103-124.
- 이선 외(2000). 지식기반경제의 이론과 실제. 서울: 을유문화사.
- 이흥우(2000). “예술과 교육.” 도덕교육연구 12-2, pp. 1-22.
- 정진화 외(2000). 지식기반경제의 인력정책. 서울: 을유문화사.
- 최혜실(1999). 디지털 시대의 문화예술. 서울: 문학과지성사.
- Drucker, Peter E. 외(1999). 지식자본주의 혁명. 기술과 진화의 경제학연구회 역. 서울: 21세기 북스.
- Fiske, Edward B. Champions of Change: The Impact of the Arts on Learning. Washington DC: Arts Education Partnership.
- Florida, Richard(2002).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이길태 역. 서울: 전자신문사.
- Gardner, Howard(1991). The Unschooled Mindrearing Minds. NY: Basic Books.
- _____(1993). Creating Minds. NY: Basic Books.
- _____(1994). The Arts and Human Development. NY: Basic Books.
- Koestler, Arthur(1964). The Act of Creation. London: Penguin.
- Lesser, Eric L(2000). Knowledge and Communities. Woburn, MA: Butterworth-Heinemann.
- Neef, Dale. et al.(1998). The Economic Impact of Knowledge. Woburn, MA:

Butterworth-Heinemann.

Polanyi, Michael(2001). 개인적 지식: 후기비판적 철학을 향하여. 표재명의 역. 서울: 아카넷.

Rifkin, Jeremy(2001). 소유의 종말. 이희재 역. 서울: 민음사.

Thurow, Lester C.(2000). Building Wealth: The New Rules for Individuals, Companies, and Nations in a Knowledge-Based Economy. NY: HarperCollins Publishers.

ABSTRACT

An Inquiry into Epistemological and Practical Possibilities of Public School Arts Education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Eunshik Choi

The Korea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is in the process of a qualitative change which it has never experienced before. This change is heading for the knowledge-based society. The knowledge-based society is based on an information-based society. The Korean society has achieved the task of building information-based society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The knowledge-based society requires the concept of traditional knowledge to be changed. The traditional concept of knowledge is relying on the logical positivism. A positive epistemology argues that a truth becomes a reality only when it can be repeated and clearly stated. It presupposes the division of a knower and an object being known.

However, post-positivistic concept of knowledge rejects the traditional notion. Among the post-positivistic epistemological views, the concept of tacit knowledge, which stress pre-reflective process of knowledge, is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view on knowledge in an changed society.

An artistic way of knowing not only rejects the division of the subject and object, but also perceives and expresses the uniqueness and wholeness of an object in a way which elicits common emotional responses. In this way, an artistic perception gives a practical clue to the development of a tacit knowledge. The reason for re-evaluation of the public school arts education lies here.

The knowledge-based society needs a new way of knowing, that is tacit knowledge, and an artistic knowledge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acit knowledge far more effectively than those other subjects in the school.

The renewed reason for public school arts education is also found in the fact that it gives

to the students chances to be equipped with practical abilities which are required to meet the characteristic changes of knowledge-based society.

주제어 : 지식기반사회, 개인적 지식, 예술적 인식, 암묵적 지식, 예술교육